

**날짜:** 5786 년, 11 월 3 일 (2026 년 1 월 21 일)

**토라 문:** Bo (이리 오라)

**주제:** 누가 구속을 먹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토라는 경계를 제시합니다. 자유가 막 도착했는데도 엘로힘은 움직임이 아니라 한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탈출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sup>1</sup>

첫눈에 이 구절은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해방의 순간에 왜 제한을 도입하는가? 자유의 탄생에 왜 배제를 말하는가? 랍비 전통은 깊은 통찰로 답합니다: **언약 없는 구속은 해체되지만, 언약은 구속을 한 백성으로 형성합니다.** 세모트 12:43 은 은혜의 축소가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규율입니다.

유월절(נוֹף - 페사흐)은 단순한 추억의 식사가 아닙니다. 토라의 원래 틀 안에서 그것은 희생, 순종, 그리고 신적 왕권(מְלוּכּוֹת יְהוָה - 말쿠트 여호와)과 결속된 **언약적 행위**입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은 역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방인—נְכָרִי / נְכָר (네카르 / 노크리)—을 민족적 용어가 아니라 언약적 용어로 말합니다. 노크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의 의무, 규율, 헌신 밖에 머무르는 자입니다.<sup>2</sup>

토라는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같은 장에서 포함의 문을 엽니다: 종은 할례 후에 먹을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타국인—גֵּר (게르)—는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토라는 선언합니다. **“토라 하나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에게 있을 것이니라.”**<sup>3</sup> 논리는 명백합니다. **언약은 열려 있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페사흐는 타국인에게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없는 상징으로 축소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패턴은 창세기 17 장에서 메아리칩니다. 거기서 할례(מִילָה - 브릿 밀라)는 언약(בְּרִית - 브릿)의 표징으로 소개됩니다. 토라에서 언약은 결코 추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시된 소속**입니다. 세모트 12 장은 그 논리를 구속(גְּלוּלָה - 게올라)으로 확장합니다: 해방된 삶은 이제 형성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자기정의를 아니라 재정렬입니다.<sup>4</sup>

탈무드는 이 통찰을 더 날카롭게 합니다. 페사힘에서 랍비들은 유월절 그룹에 **등록된 자**만이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려는 배제가 아니라 온전성입니다. 유월절 제물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하나의 언약적 몸으로 묶는 거룩한 행위(שְׂדֵקָה - 카도쉬)입니다. 소속 없이 먹는 것은 온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남자—לֵלֵךְ (아렐)—은 배제되는데, 이는 처벌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아직 언약의 표징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몸에 새겨진 언약을 반영합니다.**<sup>5</sup>

토라는 이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화합니다. 베미드바르 9 장에서 부정이나 거리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שְׁנֵי פֶסַח – 페사흐 세니)이 제정되는데, 이는 토라의 경계가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보호하면서 진심 어린 정령의 여지를 만드는 것임을 드러냅니다.<sup>6</sup> 에스겔은 나중에 “마음과 육체에 할례 받지 않은 자”—עַל־לֵב וְעַל־בְּשָׂרָא (아렐레이-레브 우-바샤르)—를 거룩한 봉사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거룩함이 내적·외적 일관성을 요구함을 강조합니다.<sup>7</sup> 동시에 이사야는 “여호와께 붙는” 이방인(הַגֵּוֹיִם עַל־יְהוָה – 하-닐빔 알-여호와)이 기도의 집에 환영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sup>8</sup> 성경은 이 두 진리를 함께 유지합니다: 거룩함은 지켜지며, 진정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만 열려 있습니다.

조하는 율법에서 영적 실재로 시선을 옮기며 이 가르침을 심화합니다. 조하의 독해에서 이집트—מִצְרַיִם (미츠라임)—은 단지 한 땅이 아니라, מִצְרַיִם (메차르)와 같은 어근을 지닌 **압축과 속박의 상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지리적 탈출이 아니라, 지배에서 신적 왕권(מַלְכוּת – 말쿠트)으로의 **우주적 전환**입니다. 이 관점에서 출애굽기 12 장 43 절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구속이 깨뜨리는 체계를 계속 섬기면서 구속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정령**입니다. 그릇(קֶלֶב – 켈리)은 자신이 받으려는 것에 맞게 빚어져야 합니다.<sup>9</sup>

타냐는 이 통찰을 내면 생활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엘로힘에 대한 사랑(אַהֲבַת־אֱלֹהִים – 아하바트 하셈)이 감정만이 아니라 헌신과 규율이 될 때에야 진실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틀에서 구속은 영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엘로힘의 왕권에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לֵוִי תִלָּבֵד (카발랏 올), 하늘의 멍에 수용을 거부하면서—페사흐를 먹는 것은 자유의 혜택을 추구하면서 그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sup>10</sup> 타냐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이방인인가—여전히 협상하고, 여전히 이집트를 살려 두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출애굽기 12 장 43 절은 “누가 배제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아가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토라는 시간, 권력, 유혹을 견딜 자유를 지닌 백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정체성이 enact(실현)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소속이 규정되고, 기억(זִכָּרוֹן – 지카론)이 새로워지며, 언약이 삶으로 살아지는 곳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내면을 향한다. “이방인”은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와 방향의 자리인 마음—לֵב (레브)—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 안에서 서 있으면서도, 통제·두려움·부분적 순종이라는 미츠라임의 논리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 장 43 절은 그 내적 이방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속을 위안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언약을 소속으로 원하는가?

마침내 토라는 세대를 넘어 자유를 지탱하는 역설을 가르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무엇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이제 무엇에 속하는가로 정의됩니다. 경계는 구속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경계는 구속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자유는 기억으로 흩어지지만, 언약이 있으면 기억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 장 43 절은 역사의 문턱에 서서 해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속되는 것은 규율 있고, 자발적이며, 언약적인 소속의 행위—야훼께, 백성에게, 그리고 구속을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소속입니다.

shalom.

---

#### Footnotes

1. Exodus 12:43.
2. See Ibn Ezra on Exodus 12:43; cf. Deut 14:21 on *nokhri* usage.
3. Exodus 12:44–49.
4. Genesis 17:9–14; Ramban on Gen 17; cf. Exod 6:6–7.
5. Mishnah Pesachim 8; Babylonian Talmud Pesachim 83b–84a.
6. Numbers 9:6–13.
7. Ezekiel 44:7–9.
8. Isaiah 56:6–7.
9. Zohar II, 36b; II, 170a (Pesach and redemption motifs).
10. Tanya, Likutei Amarim, chs. 4, 41 (kabbalat ol and embodied avodah).